

순천시 '중고생 100원 시내버스' 이용객 급증

6월 도입후 이용 건수 42% 늘어 여수시도 예산 마련 내년부터 시행

전남 동부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 100원 시내버스'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시행을 정착시켜나갈 방침이고, 여수시는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고생 100원 시내버스 시행 후 중고생의 시내버스 이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가 교통카드 이용 건수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중고생 100원 시내버스가 시행된 6월과 7월 중고생 교통카드 이용 건수는 37만38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가 증가했다.

순천시는 100원 시내버스를 이용한 중고생 1인당 2만1000원 정도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순천시의 100원 시내버스 정책은 지난 2018년에 시행된 초등생 100원 시내버스 정책의 수혜대상을 중·고생까지 확대 시행한 제도로, 순천시의



순천시의 '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시행 이후 버스 이용객이 늘어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시 제공

초·중·고등학생이 교통카드로 시내버스 이용 시 100원을 결제하고 차액은 순천시가 운수업체에 보조해 주고 있다.

개선에 도움이 되고, 어려워진 가계경제에서 교통비 부담을 다소 완화해주는 효과로 이어졌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내버스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여수시는 올해 들어서 주민들의 중·고생 100원 시내버스 제도에 대한 시행 요구가 있었지만, 30억~50억원 상당의 예산 투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시행을 미뤘다.

여수시는 지난 6월 SNS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100원 시내버스 도입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69%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가격이 싸거나, 등하교 시간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 등 고려사항에 대해 주문하기도 했다.

여수시는 찬성의견이 높음에 따라 예상 비용 35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중·고생 100원 시내버스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수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초등학교 100원 시내버스의 경우 3억50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했다"며, 중·고생 100원 시내버스는 10배 이상의 예산이 추가되는 만큼 신중하게 준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 여수시 마을복지계획단 발족 국동·문수동 시범지역 선정

주민 스스로 복지 문제를 찾아 해결하도록 하는 '마을복지계획단'이 발족했다.

여수시는 최근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시범 동으로 선정된 국동에서 '마을복지계획단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가졌다.

마을복지계획단은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직접 발굴·논의·계획·실행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마을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민중심의 복지공동체다.

여수시는 마을복지계획 시범지역으로 국동, 문수동을 선정했다.

국동에서는 지난 7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직능단체회원, 교육·복지 종사자, 주택 전문가, 주민 등을 공개모집해 30명의 마을복지계획단을 구성했다. 나머지 25개 읍면동은 공개모집 중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국동과 문수동은 올해 12월 말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지역주민 욕구조사,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실행 방법을 담은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 실천해나갈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제작 관광 웹드라마 '윤슬' 서울웹페스트 베스트 촬영상

27개국 300여 작품작 중 선정 조회수 60만회·OST 등 인기

여수시가 6번째로 제작·발표한 관광 웹드라마 '윤슬'이 제7회 서울웹페스트 '베스트촬영상'을 수상했다.

서울웹페스트는 아시아 최초 웹시리즈 전문 국제 영화제에 올해 총 27개국 300여 편의 작품작 중 180여편을 선정해 부문별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여수시는 빼어난 영상미와 촬영기법, 다양한 색채를 활용한 영상 제작 등을 인정받아 베스트 촬영(Best cinematography)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웹드라마 '윤슬'은 지난 6월 시사회 직후 여수 관광 유튜브 '힐링 여수야'를 통해 최초 공개되며 두 달여 만에 조회수 60만회를 기록하는 등 관심을 받았다.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여수시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여수시당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 웹드라마 OST '윤슬', '그어사(그대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는 멜론, 벅스, 지니 등에 실시간 음악 감상 서비스를 제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여수시는 2016년부터 해마다 웹드라마를 발표하면서 여수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홍보하는데 힘써왔다.

신지끼의 사랑이야기(2016), 여명(2017), 마녀복(2018), 동백(2019), 호점복(2020), 윤슬(2021) 등 총 6편 모두 국제 웹영화제에서 상을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여수시건을 기반으로 한 '동백'은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에서 황금극대상을 수상하며 여수시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제1회 웹드라마를 제작한 김상욱 관광마케팅 팀장은 "웹드라마는 국내·외 웹페스트 교류와 초청을 통해 여수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 확산으로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더 나은 작품으로 여수를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웹드라마 '윤슬'은 미국 마이애미 웹페스트, 독일 기센 웹페스트에 공식 초청받았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시 전문 지역마케터 육성...라이브커머스 시장 공략

9월 16일~10월 28일 주2회 교육

순천시가 최근 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시장 공략을 위해 전문 지역마케터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라이브커머스는 웹,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동영상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채널을 말한다.

지난해 4000억원대였던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3년엔 10조원대로 커질 것이라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부 기업은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와 마케터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순천시 창업연당, 순천대가 주관하고 매일식품이 후원하는 '라이브커머스 전문 지역마케터 육성 사업'이 오는 9월16일부터 10월28일까지 주2회 순천대에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인재들을 라이브커머스 전문 마케터로 육성해 지역의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라이브커머스 이론과 모바일 쇼호스트 진행 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 참여자에게는 교육 수료 후 총2회 네이버 쇼핑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라이브커머스, 디지털 마케팅에 관심있는 전남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9월 10일까지 순천시 창업연당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주민안전보험금 1000만원→2000만원 보장한도 2배로 높여

구례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안전보험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구례군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1년 2월1일부터 2022년 1월31일까지다.

주민안전보험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주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NH농협 고객센터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주민안전보험 보장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안대 국문과 교수

